

### 중계부화장방역요령 내달 시행

‘중계장위생관리요령’ 과 ‘추백리방역실시요령’을 보완하고 부화장 및 가금티프스 방역요령을 포함시킨 ‘중계장부화장방역위생관리요령’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농림부는 ‘중계장부화장방역위생관리요령’을 당초 예정대로 실시하되 중계업계와 계육업계의 건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부지침을 마련,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계장부화장방역위생관리요령’이 발표된 이후 중계업계와 계육업계는 백세미생산용 산란실용계의 포함여부를 비롯해 가금티프스 백신접종 여부에 대해 논란이 지속돼 왔다.

그러나 중계업계와 계육업계는 3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방역관리요령

에 백세미생산용 산란실용계를 포함시켜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살처분이나 백신접종 여부는 농림부의 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으로 의견을 모아 농림부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5월 1일 시행 이전에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방역관리요령 세부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에 따르면 “방역관리요령을 시행하기 이전 개정하기는 절차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업계가 요구한 사항들은 세부지침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세부지침 형태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구속력은 동일하다” 하도 말했다.

(축산신문 2005. 4. 21)

### 미국산 가금육 수입재개

미국산 가금육 수입이 허용됨에 따라 닭고기 수입국이 9개국으로 늘어났다.

농림부는 지난 14일 ‘가금육의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하고 미국산 신선, 냉

장 또는 냉동 가금육 수입위생조건을 발표했다. 이로서 지난해 2월 미국 텍사스주에서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해 중단됐던 미국산 닭고기의 수입이 가능하게 됐다.

미국산 수입이 허용됨에 따라 지금까지 수입 가능한 국가는 덴마크, 영국, 대만, 프랑스, 호주, 브라질, 일본, 헝가리 등 9개국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열처리된 가금육의 경우는

태국과 중국에서도 수입이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올들어 국내 육계값이 고가행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저가의 외국산 닭고기의 수입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며 “닭고기 최대 수출국인 미국과 브라질산 닭고기의 수입이 가능해져 국내 육계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2005. 4. 21)

## 종오리 개량·수급 안정 나선다

오리부화업체가 종오리 개량과 수급 안정을 위해 수직계열화업체와 일반부화장간 적정 새끼오리를 생산키로 했다.

오리협회는 지난 6일 전국부화장회를 개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계대를 확인할 수 있는 종자오리에서 생산된 종란만을 이용해 새끼오리를 생산키로 했다.

특히 수직계열화업체 부화장은 자체 수요물량의 70%의 종오리만을 확보하

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일반 부화장에서 구입해 이용하며 일반부화장은 계열화업체들이 요청하는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함으로써 부화장의 균형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이와 함께 계열화업체들은 외부로 새끼오리를 판매하지 않고 일반부화장은 계대가 확인된 새끼오리만을 공급키로 했다. 이날 부화장회에서는 또 계대가 확인된 종오리를 확보하지 못한 일반부화장들은 종오리 육종회사에 추가로 물량을 공급해 줄

# NEWS

것을 요청하고 기간내 물량 공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미 물량을 확보한 부화장에서 일정량을 지원함으로써 종오리 개량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했다.

한편 이날 부화장회의는 올 연말까지 계대를 확인할 수 있는 종오리 사육물

량을 암컷 12만~13만수로 내다보고 월간 새끼오리를 2백20만~2백50만수를 생산해 월간 육용오리 2백만~2백30만수를 생산, 오리 수급안정을 도모키로 했다.

(축산신문 2005. 4. 21)

## 축산박람회 부스유치 등 '준비순항'

2005 한국국제축산박람회(이하 축산박람회) 부스 유치가 50%를 넘는 등 순항을 보이고 있다.

축산박람회추진위원회 사무국에 따르면 4월 15일 현재 총 500개 부스 가운데 250여개 이상의 부스 신청·접수가 완료된 상태며 국내외 축산관련 업체들의 부스신청 열기가 높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를 총괄주관하는 대한양돈협회와 추진위원회는 이러한 기대를 모아 역대 어느 박람회보다 성공적인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통해 완벽한 행사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사무국은 그동안 역대 박람회에서 부진했던 해외홍보를 위해 지난달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VIV Asia 2005'에 대전무역전시관 관계자를 파견해 현지 바이어 및 업체 유치의 적극적인 홍보를 펼쳤다. 또한 오는 5월 9일부터

12일까지 지명도가 높은 해외 축산관련 저널리스트를 초청하는 등 해외 바이어와 참관객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최할 계획이다.

박동희 축산박람회추진위원회 사무국장은 "VIV Asia에서 홍보를 했을 당시 축산박람회를 모르는 바이어나 해외 업체들이 많았다"며 "이번 박람회는 다양한 사전홍보를 통해 해외 바이어 및 참가업체의 성공적인 유치로 명실공히 비즈니스 박람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수축산신문 2005. 4. 21)

# NEWS

## 북측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22일 개성에서 남북 실무협의를

북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관련 오는 22일 개성에서 남북 실무협의를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북측이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22일 개성에서 남북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의함에 따라 현재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협의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별 이변이 없는 한 22일 개성

에서 남북 실무협의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지난 14일 긴급 제공키로 한 약품 및 장비를 남포항으로 전달할 예정임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명의 통지문을 통해 북측 국가수위비상방역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농수축산신문 2005. 4. 18)

## 축산업등록제 참여 50% 넘어서

한·육우 72.2% 양계 50.3% 양돈 39.4% 낙농 25.3% 순

축산업등록제에 따른 농가 등록률이 50%를 넘어섰다.

농림부가 3월 말 현재 축산업 등록상황을 집계한 결과, 전체 대상 3만9,087농가 가운데 1만9,823농가가 등록해 50.7%의 실적을 보였다. 등록률은 지난해 12월 27%를 나타낸 이후 올 1월 32.2%, 2월 38.5%로 높아지고 있다. 축종별로는 한·육우가 1만4,543농가 중 1만502농가가 등록을 마쳐 72.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양계로 50.3%다. 부화업과 종축업은 대상자 모두가 이미 등록을 마쳤다.

이에 반해 낙농과 양돈은 등록이 저조

하다. 낙농은 2,163농가(대상 8,545농가)만 등록해 25.3%, 양돈은 3,720농가(대상 9,448농가)가 등록해 39.4%를 기록했다. 오리는 622농가 중 143농가가 등록했다.

시·도별 등록률은 충북이 64.4%로 가장 높고 충남 62.1%, 강원 56.4%, 전북 56.1% 등의 순이다. 낙농 등록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은 등록대상 낙농가 비중이 다른 축종보다 높은 데다 낙농육우협회가 등록제 시행 연기를 주장하고 있고, 등록 후 규제 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NEWS

배정식 낙농육우협회 차장은 “축산업 등록제 시행을 유예하고 차별조항 완화 및 무허가축사 양성화, 분뇨자원화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축산업등록기간은 올 12월26일 까지로 소독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 등 추가적인 시설설치없이 현 상태의 축사 등을 등록하면 된다.

강형수 농림부 축산정책과 사무관은 “축산업등록제에 ‘축사’ 대신에 ‘가축 사육시설’ 개념이 도입돼 무허가축사도 현 상태로 등록하면 된다”면서 “등록이 연말에 몰리면 처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미리 등록해줄 것”을 당부했다. (농민신문2005. 4. 18)

## 가축 유해잔류물질기준 위반농가 명단 공개

지난해 가축에 대해 유해잔류물질을 검사한 결과 0.25%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지난해 총 11만4057마리의 가축에 대해 모니터링 검사와 규제검사를 실시한 결과 0.25%인 290마리가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이 가운데 규제검사에서 적발된 107마리가 폐기처분 됐다. 특히 2001년 0.17%, 2002년 0.14%, 2003년 0.20% 등 위반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어 동물약품안전사용을 위한 농가지도

및 홍보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기준 미국은 0.46%, 호주 0.21%, 일본 0.05%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검역원은 잔류위반농가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도축장 등에서 명단을 확인하고 규제검사에 나서도록 했다.

잔류위반 지정농가는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6개월간 규제검사를 받게 된다.

(농수축산신문 2005. 4. 13)

## “가축진료·방역지원 앞장”

여주 상거리마을-농협사료 결연

농협사료(사장 남경우)는 3월31일 경 기 여주군 여주읍 상거리마을과 자매결

연을 하고 수의진료와 방역 등 지원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농협사료는

# NEWS

이날 상거리마을에 차량용 방역기와 벽걸이 에어컨을 기증했다.  
남경우 사장은 “농협사료의 이익이 최  
대한 농촌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겠

다”면서 “농촌사랑운동을 적극 실천해  
함께 더불어 사는 도·농 상생의 터전  
을 마련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농민신문 2005. 4. 11)

## 경기도 제2청,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문산 통일대교 북단에 통제소 설치 모든 출입차량 소독

북한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관련  
해 경기도 제2청은 남북 접경지역에  
대한 특별 방역 태세에 돌입했다.

경기도 제2청은 3월29일 파주시 문  
산읍 통일대교 북단에 소독시설을 갖  
춘 특별 통제소를 별도로 설치했다. 남  
북 육상 출입로로 이어지는 이곳에는  
파주시 공무원과 파주축협 직원이 배  
치돼 모든 출입 차량과 물자에 대해  
소독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 제2청은 또 북한과 인접한 파  
주·양주·포천시와 연천군지역에서  
닭과 오리 등을 사육하는 772농가에  
대해 혈청검사 등 예찰 활동을 강화하  
는 한편 이들의 농장 소독도 주1회 하  
던 것을 매일 소독기로 변경하는 등  
방역의 강도를 높였다.

이들 농가 가운데 47농가는 특별관  
리 대상으로 선정, 모두 939건의 시료  
를 채취해 항원 검사도 마친 상태다.  
이와 함께 경기도 제2청은 임진강과  
남한강의 양수리지역 등 철새도래지  
에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방역관

을 파견, 철새의 분변을 수거해 검사도  
펼치고 축사와 사료창고 등에는 비닐  
포장을 설치, 까치 등 야생 조류 접촉  
을 차단키로 했다.

홍성기 경기도 제2청 축수산산림과  
장은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이 발견  
되면 가까운 행정관서나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031-850-2481

(농림신문 2005. 4. 11)

# NEWS

## 가축 살처분보상금 벌써 '바닥'

소 브루셀라 발생늘어... 이미 80억 부족

소 브루셀라병 발생이 크게 늘면서 살처분 보상금이 벌써 바닥을 드러냈다. 농림부에 따르면 올 들어 브루셀라에 감염된 소가 크게 증가, 3월 말 현재 3,000마리를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562마리보다 무려 5.3배 이상 늘었고, 지난 한해 동안 발생한 4,076마리(국립수의과학검역원 통계)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전염병 감염 가축을 살처분할 경우 농가에 지급하는 살처분 보상금도 이미 바닥난 상태다.

실제 농림부가 가축 살처분 보상금으로 확보한 올해 예산은 100억원 정도. 하지만 3월까지 산정한 소 보상금 총액만도 180억원에 달해 80억원이나 모자란 상태다. 현재 브루셀라 살처분 보상은 산지 시세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농림부는 예산 추가 확보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살처분 보상금 용도가 브루셀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어서 고심이 크다. 또 다른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추가 예산을 제때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별도로 농림부가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현재 추진 중인 살처분 정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농림부는 소 브루셀라 근절을 위해 지난해 관계전문가와 농가 여론을 수렴, 아직까지는 백신을 접종하는 것보다 살처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백신은 몇년간 장기간에 걸쳐 접종해야 하고 그만큼 청정화를 이루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려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추락시킬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농림신문 2005. 4. 11)

## 북한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관계부처 합동 T/F구성

북측 종식 선언까지 유지, 지난 6일 첫 회의

북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관련 국내 유입방지를 위해 농림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비생대책 T/F(태스크 포스)가

최근 구성돼 운영에 들어갔다.

농림부에 따르면 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북측의 종식선언

# NEWS

등 상황이 안정될때까지 농림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비상대책T/F를 구성해 매주 추진상황을 핫라인을 통해 공유키로 했다.

T/F구성은 농림부 축산국장을 팀장으로 방역반에는 농림부, 검역원, 질병관리

본부, 환경부가 방역협력반에는 통일부, 국가정보원, 합동참모본부가 참여했다.

T/F는 지난 6일 농림부에서 첫 회의를 열고 북한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관련 회의를 개최했다.

(농수축산신문 2005. 4. 7)

## 닭고기, 오리고기 미생물검사 기준 강화

닭고기, 오리고기의 미생물검사 기준이 강화됐다.

농림부가 지난달 29일 개정고시한 식육중미생물검사요령에 따르면 닭고기와 오리고기의 미생물검사결과와 권장기준중 대장균수가  $\text{cm}^2$ ,  $\text{ml}$ 당 105이하 CFU에서  $10^3$ 이하로 강화됐다.

모니터링검사 결과 권장기준을 초과한 경우 시·도지사는 도축장 영업자에게 위생감독 강화를 지시한다. 또한 축

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해당 도축장에 대한 위생관리기준, 생체·해체검사기준, 도축장 시설기준, 도축업 영업자·종업원 준수사항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농림부 장관은 미생물 모니터링검사 결과를 농림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등 공개할수 있다.

(농수축산신문 2005. 4. 2)

## 화인코리아 화의 인가

화인코리아가 지난 1일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정식으로 화의인가를 받았다.

화인코리아는 2003년 12월 부도 이후 1년반만에 화의인가를 받아 이번주부터 수출용 새끼오리 입식에 들어가는 등 경영 정상화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

고 밝혔다.

나재선 화인코리아 이사는 “대 일본시장 오리고기와 삼계탕제품 수출을 주도해온 저력이 있는 만큼 최근의 화의인가와 일본으로의 닭·오리고기 수출재개에 힘입어 경영정상화의 단계를 밟아



# NEWS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장 이번 주부터 수출용 오리 생산을 위한 입식에 들어갈 것"이라며 "수출용 오리고기 생산과 향후 여름철 복 특수기 삼계탕용 닭 생산을 위한 병아리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회사경영은 종전과 같이 나원주 회장 체제로 유지된다.

나원주 화인코리아 회장은 "이번 화의

인가는 보다 우수한 닭·오리고기를 생산해 국내 양계산업은 물론 지역 및 국가경제에 기여하라는 닭·오리 사육농가와 광주 전남 지역주민, 관계기관의 주문일 것"이라며 "우수한 도압설비에 걸맞는 고품질 닭·오리고기 생산으로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 수출시장 개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농수축산신문 2005. 4. 6)

## 오리 부화업계 상생 길 선택

종오리 개량, 수급안정 희망 기대

오리 부화업계가 수직계열화업체와 일반부화장간 적정한 새끼오리 생산으로 종오리 개량과 수급안정을 동시에 모색하는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오리산업의 균형적인 발전과 안정적인 성장 기반이 확보됐다.

한국오리협회는 지난 6일 전국 부화장 회의를 열어 내년 1월1일부터 계대를 확인할 수 있는 종자오리에서 생산된 종란을 이용해 새끼오리를 생산하여 오리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 가기로 했다.

또 수직계열화업체의 부화장은 자체 수요물량의 70%의 종자오리만 확보하여 새끼오리를 생산하고 나머지 30%의 물량은 일반 부화장에서 생산된 새끼오리를 구매하고 일반 부화장은 수직계열

화업체에서 요구하는 30% 새끼오리 물량을 협회를 통해 차질 없이 공급하여 부화장 형태별 균형적인 발전을 모색키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오리업계 일반 부화장은 수직계열화업체에서 요구하는 30%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계대가 확인된 새끼오리만을 생산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합의서에 참여부화장 15개 부화장 모두가 서명했다.

또 수직계열화업체 부화장은 외부로 새끼오리를 판매하지 않고 내년 1월1일부터 계대를 확인할 수 있는 종오리에서 생산된 새끼오리만을 입식하고 종오리 사육물량을 자체 수요량의 70%만을 사육키로 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날 부화장 회의는 이를 실행키 위한

# NEWS

방안으로 계대가 확인된 종자오리를 확보하지 못한 부화장의 종오리 수급을 위해 종오리 육종회사에 추가로 물량을 공급해 줄 것을 요청키로 하고, 만일 육종회사에서 기간 내 물량 공급이 안 되는 경우 기 수입 물량을 확보한 부화장이 일정물량의 종오리를 의무적으로 내놓아 종오리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부화장에 주어 종오리 개량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협의했다.

한편 이날 부화장회의는 올 연말까지 계대를 확인 할 수 있는 종자오리 사육 물량을 암컷 기준 12만수~13만수로 정하고 여기서 월간 새끼오리를 2백20만수 내지 2백50만수를 생산하여 월간 육용오리 2백~2백30만수를 생산하여 수급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 새끼오리 기준시세 1,100원... '01년 6월 이후 최대 가격

새끼오리 가격이 2001년 6월이후 최대 가격으로 상승하여 1,100원 시세로 올라섰다.

본회 새끼오리 가격조절위원회는 지난 4월 8일 광주전남도지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종전 새끼오리 기준 가격을 2백원 인상하여 지난 11일부터 협회 기준시세를 1천1백원으로 조정키로 했다.

이날 가격조절위원회는 육용오리 부족현상이 4월 들어서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번 위원회에서 결정한 9백원 시세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잘못된 결정이라며 새끼오리 가격 인상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계열유통업체 소속 위원들은 새끼오리 생산량은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입식열기가 고조되어 새끼오리 부족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며 새끼오

리 가격이 높게 형성되면서 출하시기의 생산과잉이 우려된다며 새끼오리 가격의 현실적인 조정을 요청했다.

이 같은 상반된 의견에서 부화장들의 새끼오리 부족현상에 따른 시세조정이 현실적인 타당성이 인정되어 기준시세의 상향조정이 이뤄졌다.

국내 새끼오리 가격이 이 같이 상승한 것은 지난 '01년 6월이후 약 3년 10개월만에 최고치로 올라선 가격으로 오리고기 소비량에 비해 생산량이 현격히 줄어든데다 냉동채고 물량의 대부분 소진 및 오리고기 수입물량의 중단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모처럼 육용오리 도매가격이 높게 형성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NEWS

## 육류소비량 감소... 돼지고기는 늘어

지난해 우리나라 한사람이 소비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소비량이 31.3kg으로 전년동기 대비 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축산물의 품목별 소비량은 쇠고기 6.8kg으로 전년 동기 8.1kg대비 16.4% 감소하였고 닭고기 소비량은 6.6kg으로 전년 동기 7.9kg대비 18.5% 감소했다.

이와 같은 축산물 소비량 감소는 경기 침체에 의한 소비위축과 쇠고기의 경우 질병에 문제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에 따른 수입량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되며 닭고기 역시 국내 질병발생에 의한 소비량 감소가 주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반해 돼지고기 소비량은 17.9kg으로 전년 17.3kg에 비해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 축산물의 질

병발생으로 소비량이 줄어든데 반해 돼지고기의 대체 소비가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 밖에 계란소비량은 193개로 전년 191개에서 소폭증가하였고 우유, 유제품 등의 소비량도 63.7kg으로 소폭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마시는 신선우유는 37kg으로 전년 62.4kg에 소폭 줄어들었고 치즈 버터 등 유가공제품의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농림부는 올해 선진국들의 육류소비량과 우리의 소득수준을 감안할 때 앞으로 육류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금년 주요 축산물의 소비량을 32.1kg 전망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국내 오리고기 소비량은 잠정적으로 0.8kg으로 전년도 소비량 1.07kg 대비 33% 감소한 것으로 협회는 추산하고 있다.

## 3월배합사료 전년비 113%증가... 전월에 비해서는 26% 증가

오리 배합사료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오리사육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농림부가 집계한 3월 배합사료 생산동

향에 따르면 오리배합사료 판매량은 총 18,259톤이 판매되어 전년 동기에 비해 113% 증가하였고 전월에 비해서도 126% 큰 폭으로 증가된 것으로 집계됐다.

# NEWS

품목별로는 어린오리 사료 판매량이 2,843톤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1% 증가되었으나 전월에 비해서는 무려 36% 증가했다. 육용오리 사료 판매량은 8,165톤이 판매되어 전년 동기에 비해 11% 감소한 반면 전월에 비해서는 125% 증가됐다. 또 큰오리 사료 판매량은 5,068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198% 증가하였고 전월에 비해서는 1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끼오리 생산량을 예측할 수 있는 산란오리 판매량은 2,183톤이 판매되어 전년 동기 대비 128%, 전월대비 117%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육용오리 생산량이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

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이를 기준으로 예측된 3월 암컷 중오리 전체 사육량은 264,143수로 이 중 폐킨종 오리 암컷 사육량은 18~20만수 내외가 사육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기준으로 4월 새끼오리 생산량은 2백40~2백70만수의 폐킨종 새끼오리가 생산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5월중순 이후 6월 중순까지 2백16만수~2백43만수의 육용오리가 출하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 같은 육용오리 생산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28% 증가하는 생산량으로 분석된다.

## 가금학회 춘계심포지엄 개최

2005 한국가금학회(회장 이봉덕) 춘계 국제심포지엄이 오는 22일 농협 서울지역본부 대강당에서 '국내외 가금산업의 현재와 미래'란 주제로 개최된다.

가금학회는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서 국내 가금산업은 물론 일본, 미국, 유럽 등의 가금산업현황과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가금학회가 국제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가금산업에 대해서는 애그리브랜드푸리나코리아의 안형진 전

무과 가금질병 발생현황에 대해서는 경북대 김기석 교수가 발표한다.

대한수의사회 박근식 박사의 좌장으로 진행되는 종합토론에는 체리부로 김인식 대표, 양계협 채란분과위 김선웅 위원장, 양계협 종계분과위 이연중 위원장, 토종닭연합회 문정진 총무, 오리협회 김규중 회장이 참여한다.

(축산신문 2005. 4. 4)

## 수출 오리육 반송 손실 보전

저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해 일본에 수출됐다 반송된 오리고기에 대한 손실분이 지원된다. 가금수급안정위원회(위원장 고영곤)는 지난 24일 2005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오리고기 수출업체들의 손실액 일부를 지원키로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오리고기가 지난해 10월 일본수출이 재개된 이후 발생한 저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으로 인해 수출됐던 오리가 반송 조치됨에 따라 오리업계의 피해가 발생, 이에 대한 오리협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부분은 반송조치된 오리고기 65톤에 대한 것으로 수출가격에서 국내유통가격을 제외한 부분과 수출 물류비 70%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총 1억6천1백만원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다만 이날 수급위 위원들은 돼지고기의 경우 대일 수출중단으로 인해 수출 반송된 경우에는 정부에서 직접 지원한 바 있어 수급위 차원의 지원이 바람직

한 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저병원성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중단된 특별한 상황으로 수급위 차원의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이같이 의결했다.

한편 가금수급안정위원회는 올해 수급안정사업예산으로 총 46억8천2백만 원을 책정했으며, 이중 생산조절사업 17억7천7백만원(35.5%), 소비홍사업 17억1천만원(34.2%), 가금산물 수출입관련 사업 5억6천만원(11.2%), 조사연구사업 2억3천만원(4.6%), 생산자 및 소비자 홍보사업 1억7천만원(3.4%) 등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생산 및 공급과잉 예상 시 중계종오리 등 도태사업을 통한 생산조절 사업과 소비촉진을 위한 TV프로그램 홍보, 수출물류비 지원, 중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교육 및 세미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축산신문 2005. 4. 4)

## 인천항도라산역 검역강화

농림부는 북한에서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북한산 가금육 반입을 중지시키는 동시에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가 이뤄지는 지점의 검역 및 방역을 더욱 강화하는 등 유입 방지에 총력을 기

우고 있다.

농림부는 최근 포키 트레이딩이 반입을 추진했던 북한산 닭고기 40톤에 대해 의사 조류인플루엔자로 알려짐과 동시에 반입을 이미 중지토록 조치한데

# NEWS

이어 인천항, 도라산역 등 남북간에 인력과 물자가 오가는 곳에 신발 및 차량 소독 등을 실시하고, 입경자에 대해 휴대품 검색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도라산역과 고성 남북한 출입사무소에는 북한당국이 지난달 27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공식 밝힘에 따라 당장 이날부터 검역인력을 현행 1~2명에서 2~3명으로 각각 1명씩 증원 배치했다.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을 우려하는 여론에 대해 농림부는 지금까지 북한산 가금육이 수입된 적이 없는데다 남북간 교류가 이뤄지는 곳에 철저한 검역 및 방역조치가 이뤄지고 있으며, 철새도 계절적으로 남에서 북으로 이동하는 상황이기에 때문에 북한의 조류인플루엔자가 남한으로 전파될 가능성은 거의 없

는 것으로 전망하는 등 감염우려를 불식시켰다. 농림부는 그러나 만일의 경우에 대비, 농가 단위의 임상관찰과 오리에 대한 혈청검사(도축장 출하 오리 대상)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농림부는 아울러 북한의 조류인플루엔자를 종식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정부내 협의결과에 따라 최대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국은 2003년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을 때 이를 3개월 만에 효과적으로 종식시킨 경험을 갖고 있으며,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이러한 우리의 능력을 높게 평가한 바 있다.

(축산신문 2005. 4. 1)

## 가축질병 방역활동 돌입

광주광역시축협(조합장 안명수)은 지난 29일 조합 본점에서 김동해 농협전남본부장과 위영휘 광주시 농정과장, 축산농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2개 지역 공동 방역단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광주축협 현관에서 가축질병 방역본부 현판식을 갖고 조합을 중심으로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대대적인 가축질병 방역활동에 들어갔다.

광주축협은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

은 봄철을 맞아 조합원 양축농가에게 축사소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연막소독기 50대와 생석회 1500포대, 소독약품 7000만원 어치를 구입해 무상 공급한다.

이날 참석한 조합원과 직원들은 을 사업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자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지난해 전국 회원조합 업적평가 광주전남 1위와 전국 2위를 차지한 영예를 올해도 이어가자고 다짐했다.

(농수축산신문 2005. 4. 1)